

자아탄력성에 대한 개념분석

정여원¹ · 김정아²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¹, 한양대학교 간호학부²

A Concept Analysis of Ego-resiliency

Jeong, Yeo Won¹ · Kim, Jung A²

¹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²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clarify the concept of ego-resiliency in the context of nursing and to propose a definition of ego-resiliency. **Methods:** Rodgers' evolutionary approach to concept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common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he term ego-resiliency. A literature search of the RISS, NDSL, NAL, CINAHL, PubMed, MEDLINE, PsycINFO, and Scopus databases from 1980 to 2014 was conducted, using the key words of ego-resiliency, ego-resilience, and ego-resilient. Thirty-four relevant articles and one book were finally selected and thoroughly review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concept analysis concluded that ego-resiliency was a individualized, integrated, and coping resource and capacity leading personal adaptive capacity including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well being in various adversity and challenge of lif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arranted nursing research on a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related with ego-resiliency as a pivotal personal characteristic. By doing so,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and health within the context of nursing could be achieved.

Key Words: Ego-resiliency, Resilience, Concept analysi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란 인간의 모든 일상의 경험과 삶의 즐거움, 도전 및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개인 특성 요인으로, 특히 발달단계에서의 과업수행이나 성취 혹은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1960년대 Block에 의해 처음 기술된 자아탄력성은 일반적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탄력성(Resilience)'과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3-5], 특성(trait)과 발생 맥락적 측면에서 그 차이를 설명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에 기초하여 성격발달 맥락에서 형성되는 개념인 반면, 탄력성은 '과정'의 맥락에서 즉, 역경이나 변화의 노출로 인한 '역동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으로 [2-4], 자아탄력성의 개념적 구조 아래에 탄력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6]. 이에 몇몇 연구자들은 연구의 초점이 '성격'인지 혹은 '과정'인지에 따라 자아탄력성(Ego resiliency)과 탄력성(Resilience)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자아탄력성, 탄력성, 개념분석

Corresponding author: Kim, Jung A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133-191, Korea.
Tel: +82-2-2220-0799, Fax: +82-2-2297-8613, E-mail: joyhippo@hanyang.ac.kr

Received: Aug 28, 2015 / **Revised:** Dec 9, 2015 / **Accepted:** Dec 12,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5,7].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탄력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개념들이 역경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의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거나, 적절한 중재를 위한 설계를 가이드 하지 못하며, 개념들을 설명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3,4,7].

자아탄력성이란 개념은 주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나 국내 간호영역에서 임상적 연구는 시작단계로 아직 미흡한 편이다[8]. 자아탄력성 관련 국내 간호학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간호사의 업무성과[8], 간호업무수행[9], 공감피로[10] 등이 있으며, 이 외 자아탄력성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11], 문제해결능력[12], 실습만족도[13]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을 탄력성(Resilience) 혹은 영문 표현을 ego-resiliency가 아닌 self-resiliency로 표현하거나[9,10],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탄력성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12,13], 탄력성의 측정도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고 있었다[11].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탄력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개념적 차이와 구별이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자아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국내 및 국외문헌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개념 혹은 도구개발 과정을 통한 개념 및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학, 교육학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1-3,6,14,15], 간호학적 맥락에서의 자아탄력성의 개념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Rodgers[16]은 개념을 시간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본질로서, 개념분석을 통한 개념의 명료화는 학문에서 유용하고 의미 있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련 지식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즉, 간호연구에서의 개념분석은 간호현상을 설명, 통제, 예측하기 위한 간호이론 개발을 위한 초석이며, 이는 곧 간호실무 및 간호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Rodgers[16]은 간호학문에서의 개념이 다른 학문에서 ‘차용된’ 것인 경우 맥락과 시간적 차원에서의 다학제적인 개념 비교는 매우 유용하며, 개념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개념분석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결과라 하였다.

간호현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다양한 맥락적 요소에 의해 해석된다는 점에서 진화론적 방법의 개념분석은 간호현상의 맥락 안에서 관심 개념을 명료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Rodgers[16]의 진화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속성을 바탕으로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둔 간호실무와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Rodgers[16]의 진화론적 방법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통합·분석하여 그 속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특히 간호에서 자아탄력성에 관한 실무와 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다른 학문에서 실시된 연구와 국외 문헌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Block[17]에 의해 본격적으로 자아탄력성의 개념이 논의된 1980년 이후부터 2015년 4월까지로 진행하였으며, 자아탄력성 개념의 속성과 선행요인 및 결과를 찾기 위하여 국내문헌의 경우 ‘자아탄력성’을 주제로 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및 국회도서관(National Assembly Library, NAL) 검색엔진을 통해 문헌을 검색하였다. 국외 문헌을 위해서는 CINAHL, PubMed와 ProQuest을 이용한 MEDLINE, PsychINFO, Scopus 등의 검색엔진을 통해 ‘ego-resiliency’, ‘ego-resilience’, ‘ego-resilient’를 주제로 하여 영어로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문헌 이외에 Block[17]이 집필한 서적 1종을 포함하였으며,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한 후 일차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전문을 확보하였다.

1) 포함기준

- 198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출판된 논문
- 국문 혹은 영어로 기술된 논문 중 전문(Full text)이 확인되는 논문
- 자아탄력성(Ego resiliency or trait resilience)의 개념, 특성 및 속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논문

2) 제외기준

- 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혼용한 논문
- 특정대상, 변수,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변수 혹은 매개변수로만 이용하고 관련 개념이나 특성은 설명하지 않는 논문
- 각종 보고서, 학술대회발표(포스터 발표 포함) 논문

3) 최종자료수집

검색엔진을 통해 총 1794건의 논문(국문 1188건, 영문 606건)이 검색되었으며, 제목, 초록의 검토 및 필요 시 전문을 확인하여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30건(국문 9건, 영문 21건)의 문헌이 도출되었다. 검색엔진 외에 참고 문헌 추적 등의 수기방법을 통해 4개의 논문을 추가하였으며,

자아탄력성에 관한 개념을 처음 소개한 Block[17]이 저술한 책 1권을 포함하여 총 34개의 논문과 1권의 책이 자아탄력성 개념분석에 이용되었다(Figure 1).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Rodgers[16]가 제시한 진화론적 방법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헌에서의 관심개념에 대한 일치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전반적인 개념과 그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논문의 전문(full text)을 정독한 뒤, 두 번째 정독 시에는 각 논문에 대해 Rodgers의 개념분석의 요소(속성,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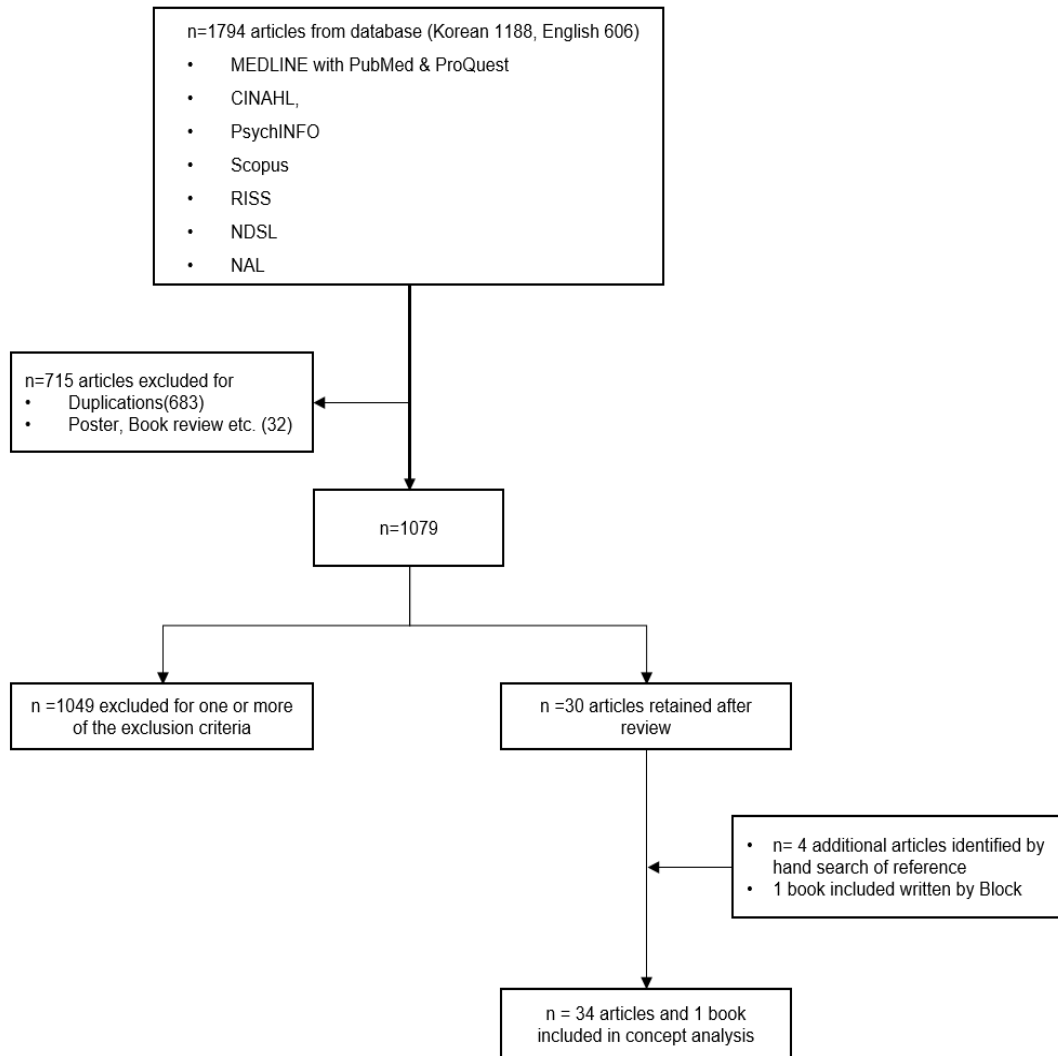


Figure 1. Literature search and selection algorithm.

요인, 결과, 대체용어 및 관련 개념)를 바탕으로 구분, 정리하였다. 또한 각 논문이 다루어진 학문과 자아탄력성 정의, 연구 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각 논문 별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맞게 자료를 구분, 정리하였다. Rodgers[16]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는 각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에 대한 일치 혹은 합의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일치되지 않는 부분(outlier) 중 개념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타’라는 항목에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1. Literature Review Analysis Criteria

Items	Analysis criteria
General information related to article	Title Author Journal Year of publication Discipline of authors Population [if needed]
Concept characteristics	Definitions Antecedents Attributes Consequences Surrogate terms Related terms Others

Table 2. Some of the Definitions of Ego-resiliency

Author (s). [year, reference no.]	Definition
Gjerde PF, et al. [1986, 29]	Individual's dynamic capacity to modify his or her modal behavior in the face of changing environmental demand characteristics
Block J, et al. [1996, 6]	The dynamic capacity of an individual to modify a characteristic level of ego-control, in either direction, as a function of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context, so as to preserve or enhance system equilibration
Klohnen EC. [1996, 2]	A personality resource that allows individuals to modify their characteristic level and habitual mode of expression of ego-control so as to most adaptively encounter, function in, and shape their immediate and long-term environmental context
Luthar SS, et al. [2000, 4]	A set of traits reflecting general resourcefulness and sturdiness of character, and flexibility of functioning in response to varying environmental circumstances
Letzring TD, et al. [2005, 30]	Meta-dimension of the dynamic capacity to contextually modify one's level of control in response to situational demands and affordances
Chuang SS, et al. [2006, 17]	The capacity to adapt to changing environments and life circumstances
Alessandri G, et al. [2007, 1]	Personality that tap adjustment, effective coping, intellectual functioning, flexibility and an engaging and active approach to the world
Milioni M, et al. [2015, 22]	A balance of the individual's adaptive capacities on emotional level

연구 결과

1. 문헌에서 제시된 자아탄력성의 정의들

Rodgers[16]는 연구문헌에서 각 연구자들이 기술한 관심 개념의 실제정의(Real definition)는 그 속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아탄력성의 속성을 파악하기 전 단계로서 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아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였다(Table 2). 문헌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정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되었으나, 각 정의에서 내포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성격 혹은 특성의 범주 안에서, 그리고 환경적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근원인 ‘자아(ego)’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18], 시간의 흐름에 따른 뚜렷한 변화나 차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2. 개념의 속성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고 명료화하는 것은 개념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개념의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속성들은 사전적 정의가 아닌 실제 정의(real definition)를 구성한다고 하였다[16]. 문헌에서 반복

적으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속성은 1) 개별화된(individualized), 2) 통합된(integrated), 3) 대처하는(coping), 4) 이끄는(leading) 것으로 나타났다.

1) 개별화된(individualized)

문헌에서의 모든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이 개인특성 혹은 성격특성으로서, 개인이 속한 맥락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수 준의 차이를 보이는, 개별화된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 합의를 보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개인 간(interindividual) 자아탄력성의 수준 차이이다. 이는 다양한 환경적 변화나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사람 혹은 실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해주며, 개인 간의 자아탄력성의 수준 차이로 인한 결과(outcome)의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Klohn 등[14]은 여성들이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겪는 삶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적응, 경험에는 개인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자아탄력성이 이런 개인차를 일으키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개인자원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개인별(intra-individual) 자아탄력성의 수준으로, 이는 개인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자아탄력성의 수준은 삶의 전 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동일한 방향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자아탄력성 수준이 청소년 혹은 성인기의 자아탄력성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19,20],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며[21], 이런 경향은 성인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14,22]. 일부 연구에서 이런 경향은 남성에게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여성의 경우 학령기 혹은 사춘기 시기에는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를 남녀 서로 다른 사회화에 기인한다고 언급하였다[19,21]. 그러나 이 시기 또한 개인의 성장과정에 포함되어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영향을 주며, 이 때 형성된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그 이후 성인기에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남·여라는 개인별 특성에 기인하는 요인으로 볼 때, 이 또한 개별화된 속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통합된(integrated)

자아탄력성의 '통합된' 속성은 개인의 다양한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여러 자원, 혹은 문제해결능력들이 서로 연관되어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의 '대처하는' 속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통합된' 속성은 개인 내면의 '과정'이며, '대처하는' 속성은 이런 과정의 '결과'로서 행동이나, 언어, 심리적으로 표현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하에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가능한 문제해결전략, 삶의 경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 긍정적 사고와 최적의 자기조절(optimal regulation) 및 감정 조절, 타인에 대한 따뜻함과 관심, 공감능력 등이 하위구성요소로서, 서로 통합된 형태로서 발휘된다[1-3,15,23].

3) 대처하는(coping)

본 속성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 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 등의 심리적 요인들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경이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생산적이며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율 활동이며[2,15], 성인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강화의 결정적 요인인 동시에 개인의 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자원이다[22]. 자아탄력성은 삶의 전환기 혹은 발달단계에서 겪는 여러 도전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대처자원으로서 기능한다[14,20].

4) 이끄는(leading)

자아탄력성은 삶의 다양한 도전에서 개인의 보호, 예측, 및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여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기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아탄력성을 개인의 적응과 연관시키고 있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 초기 성인기뿐 아니라 중년층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발달과업, 사건, 스트레스 등 다양한 도전에서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긍정적인 적응과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2,5,14,15,24-27].

3. 개념의 선행요인

선행요인은 개념 발생 이전에 일어난 사건 혹은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개념과 연관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16]. 문헌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선행요인은 크게 유전, 기질, 성별에 따른 사회화, 부모와의 관계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유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Taylor[28]은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Serotonin Transporter Gene, SLC6A4)가 자아탄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SLC6A4는 아동이 보이는 자아탄력성의 개인 간 수준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며, 자아탄력성의 예측 요인인 동시에, 부모의 양육방식과 함께 아동의 자아탄력성 형성에 상가효과(addictive effect)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두 번째 측면으로는 개인의 기질적인 감정적 성향이 자아탄력성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기질적으로 높은 경우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방해하고, 변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며[29], 기질적인 낙관적 성향은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2].

세 번째,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발달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닌, 성별에 따른 사회화에 기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과 기대가 구별되고, 이에 따라 삶에 있어서 서로 다른 도전에 접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아탄력성의 성별 차이와 함께 변화의 수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19,21]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개인의 성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한다. 유아기 시절의 부모의 과도한 참견, 통제적 양육방식, 적대감, 아동의 부정적 성향과 같은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자아탄력성의 발달에 부적 영향을 끼친다[26,30].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지지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따뜻함은 유아기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6,28,31].

자아탄력성의 선행요인으로서 역경이나 부정적 사건들은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역경이나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노출이 자아탄력성의 발전에 선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반면[3,4], Vecchione 등[20]은 극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은 자아탄력성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4. 개념의 결과

결과는 개념의 결과로서 혹은 개념 이후에 발생한 일이나 현상, 상황을 의미한다[16]. 문헌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아탄력성의 결과는 개인의 적응능력이었으며, 하위 범주로 1) 신체적 well-being, 2) 심리적 well-being, 3) 사회적 well-being 으로 도출되었다(Figure 2).

모든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응능력을 증진시켜 환경의 변화, 발달단계 상의 과업 혹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건강한 적응을 유도한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한 개인의 적응능력은 다시 세 가지 하위 범주로서 살펴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이 신체적 well-being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는데, 자아탄력성이 약물남용이나 알코올 의존을 감소시키고[2],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감소[30], 부적응으로 인한 신체화 증상이나 건강문제[19], 폐경기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감소시키는 등[14]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하거나 유지시켰다. 또한 심리적 well being으로 정체성 확립[22], 삶의 만족감 증가[27], 긍정정서[25], 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의 감소 등의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2,5,14].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균형이나 존재감을 포함한 사회적 well-being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2],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14], 학업이나 업무 성취[25], 공감능력[29],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우정 등 적절한 대인관계[14],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적응 행동을 증진시켰다[2,19,2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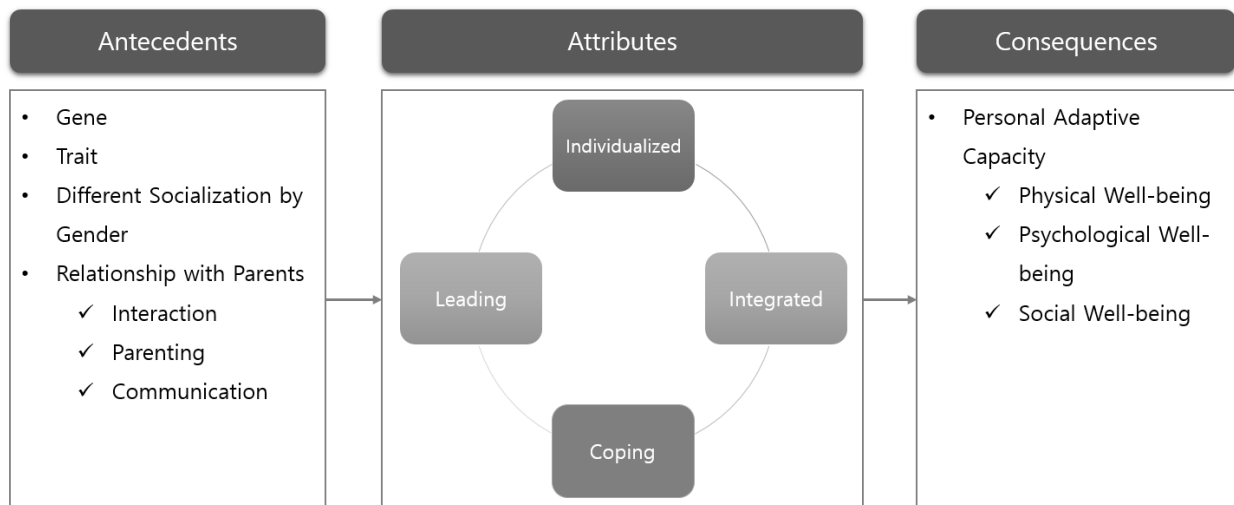


Figure 2. Conceptual diagram of ego-resiliency.

5. 개념의 대리용어 및 관련 개념

대리용어(surrogate term)는 개념에 대해 각 연구자들이 선택한 단어나 표현 이외에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헌에서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반면, 관련 개념(related term)은 관심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 개념이지만 동일한 속성을 나누지 않는 개념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대리용어로 특성 탄력성(trait resilience)을 들 수 있다. 특성 탄력성이란 탄력성을 유전되는 개인의 특성[20] 혹은 성격적 특성[5]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유아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20],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고 부정적인 결과는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5]. 특성 탄력성이 개인의 성격 특성 및 적응에 관한 용어로 정의되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선행요인 및 결과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자아탄력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리용어로 볼 수 있다.

관련 개념으로는 탄력성(resilience)을 들 수 있는데, 탄력성이란 삶의 중요하고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나 역경의 맥락 안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4]. 자아탄력성과 탄력성은 삶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첫 번째, 자아탄력성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를 환경적인 맥락 안에서 발휘되고 기능하는 개인의 대처 자원 및 능력(capacity)으로서 개인의 성격특성에 기초하여 설명되는 반면, 탄력성은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삶의 변화 중 개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역경이나 스트레스, 혹은 사건(trauma)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반응으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자아탄력성에서 외상 사건의 경험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자아탄력성은 외상 사건 노출의 가능성이 낮은 생의 초기, 즉 유아기에도 관찰 가능한 개인 특성이며[23], 외상 사건이나 역경이 아닌 환경적인 맥락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2,4,6,19,31].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은 개인특성(personal trait)으로 유전이나 맥락적 요인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적응과 연관되어 개인에게 초점을 두지만, 탄력성은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보호 요인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1,4,6,7].

이와 같이 자아탄력성과 탄력성의 개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Luthar 등[4]은 자

아탄력성의 성격적 특성이 탄력성 과정에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Philippe 등[5]은 특히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부정적 증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과, 즉 보호 효과로서 탄력성 과정 안에 자아탄력성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탄력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모호한 개념의 사용이 연구의 결과와 실무 적용에 여러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자아탄력성 및 관련 개념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논 의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통합·분석하여 그 속성의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Rodgers[16]의 진화론적 방법으로 개념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의 주요 속성은 ‘개별화된’, ‘통합된’, ‘대처하는’, ‘이끄는’으로 나타났다. 선행요인으로 유전, 기질, 성별에 따른 사회화, 및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부모와의 관계 등이 자아탄력성과 연관이 있었으며, 그 결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well-being을 포함하는 개인의 적응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힌 주요 속성 및 결과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 보면, 자아탄력성이란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well-being을 포함하는 개인의 적응능력을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속성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삶의 변화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자원과 능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타인과는 구별되는 개별화된 속성이 두드러지게 되며, 이런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흐름의 반복은 결국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의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속성, 선행요인, 및 결과를 맥락적인 흐름에서 살펴보고, 향후 간호 실무에의 적용 및 연구방향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의 첫 번째 속성은 ‘개별화된’ 속성으로, 자아탄력성의 선행요인-유전, 기질, 성별에 따른 사회화 및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선행요인 중 부모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간호학적 맥락에서 특히 모성과 아동의 적응과 well-being을 위한 간호중재에 자아탄력성을 포함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은 임신, 출산의 과정을 통해 어머니가 되는 과정(becoming a mother)에 놓이게 되며, 모성의 신체적, 정서적 적응은 산모의 삶의 질 증진뿐 아니라 자

녀 양육과 가족 안녕의 향상에 기여한다[33]. 즉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은 좁게는 개인에게 초점을 둔 삶의 변화이자 적응의 측면으로, 넓게는 자녀 양육과 well-being의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의 ‘개별화된’ 속성은 개인 간, 개인별 자아탄력성의 수준을 설명하는 것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에 따른 모성 적응 정도를 예측해보고, 자녀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양육방식이나 태도 등을 포함하는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와 관련된 간호학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달단계에서의 간호중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Taylor등[29]은 자아탄력성이 공감발달의 주요역할을 하며, 개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 받은 아동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감정 사회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가 참여하는 아동의 발달단계에서의 간호중재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통합된’ 속성으로 자아탄력성의 세 번째 ‘대처하는’ 속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란 삶의 다양한 변화나 도전에서 개인의 여러 자원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나 변화에 대처하여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간호학적 맥락에 접근해 본다면, 질병을 가진 환자의 대처양상, 간호사의 업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등의 개인별 혹은 개인 간의 차이 비교, 기여요인, 및 중재요인 등 폭 넓고 다양한 간호학적 이슈에 적용 가능한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Park[34]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낮은 수준의 통합성과 대처자원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통합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통합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개인특성으로서 자아탄력성을 통합된 속성으로 이해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Kwon등[35]은 긍정적 관점의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긍정적 관점이나 사고는 자아탄력성의 하위구성요소로[2,15] 실제 간호사들이 이런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간호사와 업무, 소진, 공감피로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아직 시작단계로서 앞으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일부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탄력성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아탄력성의 ‘통합된’ 및 ‘대처하는’ 속성을 포함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맥락에서 간호사의 소진, 대처전략, 공감피로, 및 공감만족 등 간호사의 직무 관련 연구에서 대상자의 개인특성으로서 연구 방향 및 반복적 연구를 제안한다.

자아탄력성의 네 번째 ‘이끄는’ 속성은 삶의 다양한 변화나 도전에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탄력성 개념의 결과 측면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헌에서 나타난 자아탄력성의 속성과 결과는 개인의 적응을 이끌고 개인의 well-being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well-being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처럼 well-being과 건강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Milloni등[24]은 향후 자아탄력성이 well-being과 함께 업무, 대인관계 및 건강과 같은 영역에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아탄력성은 간호학과 그 맥락 안에서 인간과 건강의 이해에 다루어져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문헌고찰을 위해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으나, 이 외 다양한 학문 분야의 모든 논문을 완전히 고찰했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의 포함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논문을 완전히 포함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간호영역에서의 자아탄력성 관련 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문헌에는 간호학적 영역이 없었던 점, Rodgers[16]의 진화론적 개념분석을 적용하는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밝히는바 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Rodgers[16]의 진화론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아탄력성의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고 규명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아탄력성이란 ‘삶의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서 개인의 적응, 사회적 능력, 신체적·심리적·사회적 well-being을 이끌기 위해 대처하는 개별화되고, 통합된 개인의 자원이자 능력’을 의미하였다. 또한 자아탄력성 개념의 속성들은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타학문에

서 사용된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분석하고, 간호 실무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간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자의 개인 특성으로서 자아탄력성을 적용한 연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변수의 확인 및 간호중재 개발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lessandri G, Vecchio GM, Steca P, Caprara MG, Caprara GV. A revised version of kremen and block's ego resiliency scale in an italian sample. *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2007;14(3-4):165-83.
- Klohn E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5):1067-78.
- Farkas D, Orosz G. Ego-resiliency reloaded: a three-component model of general resiliency. *PLoS One*. 2015;10(3):1-26.
- Luthar SS, Cicchetti D, Becker B.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2000;71(3):543-62.
- Philippe FL, Laventure S, Beaulieu-Pelletier G, Lecours S, Leles N. Ego-resiliency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11;30(6):583-98.
-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61.
- Vanderbilt-Adriance E, Shaw DS. Conceptualizing and reevaluating resilience across levels of risk, time, and domains of compet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008; 11(1-2):30-58.
- Lee AS, Yoon CK, Park JK.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of hospital nurses.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2;21(3):283-9.
- Cho O-H, Hwang K-H. The influences between new nurses' nursing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siliency and core self-evalu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7):291-301.
- Cho HJ, Jung MS. Effect of empathy, resilience, self-care on compassion fatigue in oncology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4):373-82.
- Yun S-Y, Min S-H.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12):395-403.
- Ji EJ, Bang MR,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4): 571-9.
- Park W-J, Han JY.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365-75.
- Klohn EC, Vandewater EA, Young A. Negotiating the middle years: ego-resiliency and successful midlife adjustment in women. *Psychology and Aging*. 1996;11(3):431-42.
- Kim MH, Kim SH. Development of an ego-resilience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1):189-206.
- Rodgers BL. Concept analysis: an evolutionary view. In: Rodgers BL, Knafl KA, editors.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2nd ed. Philadelphia: Saunders; 2000. p. 77-102.
- Block JH,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L. Erlbaum Associates; 1980.
- Winkler A. Resilience as reflexivity: a new understanding for work with looked-after children.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014;28(4):461-78.
<http://dx.doi.org/10.1080/02650533.2014.896784>
- Chuang SS, Lamb ME, Hwang CP.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06;30(4):338-43.
- Vecchione M, Alessandri G, Barbaranelli C, Gerbino M. Stability and change of ego resiliency from late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 multiperspective study using the ER89-R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10;92(3):212-21.
- Block J, Block JH.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2006;61(4):315-27.
- Pals JL. Identity consolidation in early adulthood: relations with ego-resiliency, the context of marriage, and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1999;67(2):295-329.
- Block JH,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Collins WA editor.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2nd ed. New York: Psychology Press; 2009. p. 39-101.
- Milioni M, Alessandri G, Eisenberg N, Vecchione M, Caprara GV. The predictive role of ego-resiliency on behavioural problem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5; 12(2):220-33.
- Suh KH, An JS, Kim G.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parentif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17(4):1027-43.
- Swanson J, Valiente C, Lemery-Chalfant K, O'Brien TC. Predicting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com-

- petence, and physical health from parenting, ego resilience, and engagement coping.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1; 31(4):548-76.
27. Utsey S, Hook J, Fischer N, Belvet B, Utsey SO, Hook JN, et al. Cultural orientation, ego resilience,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008;3(3):202-10.
28. Taylor ZE, Sulik MJ, Eisenberg N, Spinrad TL, Silva KM, Lemerly-Chalfant K, et al.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relations to observed parenting and polymorphisms in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during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014;23(3):433-50.
29. Taylor ZE, Eisenberg N, Spinrad TL, Eggum ND, Sulik MJ. The relations of ego-resiliency and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cross early childhood. *Emotion*. 2013;13(5):822-31.
30. Smeeckens S, Marianne Riksen-Walraven J, van Bakel HJA. Cortisol reactions in five-year-olds to parent-child interaction: the moderating role of ego-resilienc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7;48(7):649-56.
31. Gjerde PF, Block J, Block JH. Egocentrism and ego resilien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pective-taking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2):423-34.
32. Letzring TD, Block J, Funder DC.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the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05;39(4):395-422.
33. Song JE, Ahn JA.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29-41.
34. Park CS. Factors influencing on burnout experience in working nurses at hospita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2;8(4):550-8.
35. Kwon KJ, Lee S-H. Occupational stress and coping styles as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4):383-93.

Appendix

- A1. Alessandri G, Vecchio GM, Steca P, Caprara MG, Caprara GV. A revised version of kremen and block's ego resiliency scale in an italian sample. *TPM-Testing, Psychometrics, Methodology in Applied Psychology*. 2007;14(3-4):165-83.
- A2. Klohnen EC.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5):1067-78.
- A3. Farkas D, Orosz G. Ego-resiliency reloaded: a threecomponent model of general resiliency. *PLoS One*. 2015;10(3):1-26.
- A4. Luthar SS, Cicchetti D, Becker B.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2000;71(3):543-62.
- A5. Philippe FL, Laventure S, Beaulieu-Pelletier G, Lecours S, Leikes N, Philippe FL, et al. Ego-resiliency as a mediator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11;30(6):583-98.
- A6.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61.
- A7. Vanderbilt-Adriance E, Shaw DS. Conceptualizing and reevaluating resilience across levels of risk, time, and domains of compet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008;11(1-2):30-58.
- A8. Klohnen EC, Vandewater EA, Young A, Klohnen EC, Vandewater EA, Young A. Negotiating the middle years: ego-resiliency and successful midlife adjustment in women. *Psychology and aging*. 1996;11(3):431-42.
- A9. Lee ES, Kim 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go-resili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2;13(6):3077-94.
- A10. Lee JS. Ego resilie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013;24(3):65-86.
- A11. Yoon HH, Hong C, Lee JH. Development of parent form ego-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Science*. 2001;10(1):33-53.
- A12. Chuang SS, Lamb ME, Hwang CP.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06;30(4):338-43.
- A13. Vecchione M, Alessandri G, Barbaranelli C, Gerbino M. Stability and change of ego resiliency from late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a multiperspective study using the ER89-R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10;92(3):212-21.
- A14. Block J, Block JH.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2006;61(4):315-27.
- A15. Taylor ZE, Eisenberg N, VanSchyndel SK, Eggum-Wilkens ND, Spinrad TL.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ego-resiliency: longitudinal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Emotion*. 2014;14(2):397-406.
- A16. Pals JL. Identity consolidation in early adulthood: relations with ego-resiliency, the context of marriage, and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1999;67(2):295-329.
- A17. Block JH, Block J.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L. Erlbaum Associates; 1980.
- A18. Milioni M, Alessandri G, Eisenberg N, Vecchione M, Caprara GV. The predictive role of ego-resiliency on behavioural problem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5;12(2):220-33.
- A19. Galatzer-Levy IR, Bonanno GA, Galatzer-Levy IR, Bonanno GA, Galatzer-Levy IR, Bonanno GA, et al. Heterogeneous patterns of stress over the four years of college: associations with anxious attachment and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2013;81(5):476-86.
- A20. Suh KH, An JS, Kim G.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parentif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17(4):1027-43.
- A21. Swanson J, Valiente C, Lemery-Chalfant K, O'Brien TC. Predicting early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competence, and physical health from parenting, ego resilience, and engagement coping.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1;31(4):548-76.
- A22. Utsey S, Hook J, Fischer N, Belvet B, Utsey SO, Hook JN, et al. Cultural orientation, ego resilience,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008;3(3):202-10.
- A23. Hart D, Keller M, Edelstein W, Hofmann V, Hart D, Keller M, et al. Childhood personality influences on social-cognitive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8;74(5):1278-89.
- A24. Taylor ZE, Sulik MJ, Eisenberg N, Spinrad TL, Silva KM, Lemery-Chalfant K, et al.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relations to observed parenting and polymorphisms in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during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014;23(3):433-50.
- A25. Taylor ZE, Eisenberg N, Spinrad TL, Eggum ND, Sulik MJ. The relations of ego-resiliency and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across early childhood. *Emotion*. 2013;13(5):822-31.
- A26. Smeekens S, Marianne Riksen-Walraven J, van Bakel HJ. Cortisol reactions in five-year-olds to parent-child interaction: the

- moderating role of ego-resilienc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2007;48(7):649-56.
- A27. Gjerde PF, Block J, Block JH, Gjerde PF, Block J, Block JH. Egocentrism and ego resilien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pective-taking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2):423-34.
- A28. Lee HE, Moon SB.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and its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012;30(3):45-57.
- A29. Um I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self resilience. *Th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12;22(2):51-70.
- A30. Kim B, Lee G. The influence of negative life events, egoresiliency,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0; 48(3):1-24.
- A31. Park WJ, Lee KH. The effects of ego-resiliency on internalizing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2): 795-808.
- A32. Cramer P. Development of identity: gender makes a dif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00;34(1):42-72.
- A33. Letzring TD, Block J, Funder DC.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the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05;39(4):395-422.
- A34. Milioni M, Alessandri G, Eisenberg N, Vecchione M, Caprara GV.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emotional self-efficacy beliefs and ego-resiliency across time. *Journal of Personality*, 2014. Forthcoming.
- A35. Kim MH, Kim SH. Development of an ego-resilience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1):189-206.